

보도	2024.5.30.(목) 15:00	배포	2024.5.30.(목)		
담당부서	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	책임자	국 장	서영일	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이권홍	(02-3145-7450)

##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

### 1 간담회 개요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4.5.30.(목) 12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'를 개최하였음
  - 이번 간담회는 올해 보험회사 CEO와 갖는 첫 간담회로, 작년 간담회 이후 개선 결과를 전달하는 한편
  - 보험권 당면과제 등 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보험 산업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였음

#### 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4. 5. 30.(목) 15:00~16:00
- ☑ 장 소 :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(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3층)
- ☑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이복현 원장, 차수환 보험부문 부원장보, 보험감독국장  
 (생명보험 6개사) 삼성, 한화, 교보, 미래에셋, 신한라이프, 동양  
 (손해보험 6개사) 삼성, DB, 메리츠, 현대, KB, 흥국  
 (유관기관)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

### 2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이복현 원장은 그간 보험산업이 국내 금융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통해 국민 경제에 기여해 왔으나,
  - 他업권 대비 소비자 신뢰도가 낮은 문제점을 지적하며,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세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음

□ 첫째,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"튼튼한 동반자"가 되도록 보험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

- 보험산업이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시장內 출혈경쟁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\*하고 있음을 언급하며,

\* '23년 보험민원은 49,767건으로 전체 민원의 53.0%

- 산(産)·학(學)·관(官)이 참여하는 "보험개혁회의\*" (5.7. 출범)를 통해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고,

\* [참여기관] 금융당국, 보험협회, 연구기관, 보험회사(업계 전문가) 등  
[향후일정] '24년말까지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마련後 '25년 최종방안 발표

- 同 회의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에도 깊은 관심을 주문하였음

□ 둘째, 보험업계가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음

- 그간 보험산업이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여 시장안정에 큰 역할\*을 해왔음을 언급하며,

\* 예. 채권안정펀드('08년, 글로벌 금융위기) 1.5조원 출자 / 증권시장안정펀드 ('20년, 코로나19) 1.3조원 출자 등

- 금번 마련된 PF 연착륙 대책(5.13.)에 있어서도 보험업계가 기관 투자자로서의 역할\*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,

\*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공급을 통해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돕는 마중물 역할 등

- 금융당국도 민간 차원의 수요기반 확충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(incentive) 방안\*을 조속히 마련·실행할 것임을 밝혔다

\* PF 정상화 지원에 대한 K-ICS(위험계수) 합리화,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허용 등

□ 셋째, 보험산업의 再도약을 위해 新성장동력 발굴 등 지속가능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

- 국내 보험시장은 과포화 상태로 성장한계에 직면\*하였고, 3大 보험환경 변화(인구·기후·디지털)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

\* [보험산업 성장률] ('21년) 2.9% → ('22년) 10.8% → ('23년) **△6.0%**

- 보험업계가 혁신을 추구하기보다는 출혈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어 미래 대비 노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언급하며,
-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'질적혁신', 新사업 발굴과 해외 진출 확대와 같은 '시장개척'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음

### 3 참석자 발언 요지

□ 보험회사 CEO들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,

- 「보험개혁회의」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혔으며,

- 논의과정에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IFRS17 안정화, 펫보험 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였음

□ 이복현 원장은 업계와의 兩방향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음

(별첨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